

EU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우리나라 방제기술·정책 도입

「리스본 소나무재선충병 국제회의」, 한국 방제기술·정책 EU 방제전략에 반영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유럽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EU(유럽 연합국)가 소나무재선충병 비상상황을 선포하는 등 조기방제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과 정책이 유럽대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0월7일~9일까지 리스본에서 포르투갈과 EU가 공동으로 주최한 「리스본 소나무재선충 국제회의」에 참가했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해 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통한 정부의 법적제제 및 지원, 발생 초기 예찰 및 방제의 중요성, 소나무재선충병의 전파 메카니즘 요인분석 등이 우리측 회의 참가자로부터 제안되어 EU의 향후 방제전략수립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국 중 정부차원의 방제의지가 강하고 나무에 예방약제를 직접 주입하는 나무주사 방법 등을 개발하는 등 방제연구가 활발하여 청정지역 선포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에 따라 앞으로 EU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다양한 협력 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 16개국 36명의 소나무재선충병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초청되어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1999년 포르투갈 세바툴(Sebatul) 지역에 소나무재선충이 처음 발견된 이래 EU와 포르투갈의

지속적인 방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포르투갈 전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확인되면서 EU가 기존 방제전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국제회의였다.

한편 소나무재선충은 그동안 멕시코를 비롯한 북미 지역과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주로 피해를 주어 왔으나 1999년 포르투갈 세바툴(Sebatul)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견되면서 포르투갈 전역에 확산되었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기로에 처해있다. 특히 포르투갈은 1999년 maritime pine (*Pinus pinaster*)에 최초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을 확인하고, EU의 지원으로 조기방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 2007년에는 초기 발생지역으로부터 직경 20km의 완충지역과 폭 3km, 둘레 길이 300km의 무송벨트를 지정하여 감염목을 제거하는 등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포르투갈과 EU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포르투갈 전역에서 채집한 2800여 시료 중 65개 샘플에서 소나무재선충이 검출됨으로써 사실상 포르투갈 전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발병하여 2007년 말까지 11개 시·도에 걸쳐 6,855ha의 산림에 피해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목 예찰 및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등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방제활동에 힘입어 2006년부터는 3년 연속 매년 30% 이상 감염목 발생이 감소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5개 시·군을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성공적인 방제성과를 보이고 있다. **山林**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 한혜림 박사 (02) 961~2654

선진 임업기계장비 보급으로 선진 임업기술 도입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화 활성화를 위한 실연회 개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은 지난 10월 24일 산림사업 현장에서 임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업체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미 보급되었거나 앞으로 보급할 예정인 임업 기계에 대한 실연회를 관계공무원 및 이를 직접 활용할 기능 인영림단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충주시 산척면 임업기계화 시범단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연회는 중부지방 산지에 적합한 실용성 있는 임업 기계를 보급하고 이에 대한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입도 등 생산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경사가 급한 중부지형에 적합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소형케 이블집재기, 중·대형 가선집재기, 굴삭기부착형집재기 등 다양한 장비에 대한 적용성 실연을 실시하였고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 하였다.



중부지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산림이 점차 장령림화 되어 인력작업이 어렵게 되고, 농산촌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짐으로써 기존의 인력 및 소형기계장비로는 더 이상 임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번 실연회를 통해 직원 및 영림단이 임업기계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임업 선진화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중부지방 산지에 적합한 임업기계장비를 적극 보급하고 중·대형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력을 적극 양성함으로써 임업기계화 촉진 계획을 앞당김은 물론 그동안 수집이 어려웠던 숲가꾸기 산물을 적극 수집·활용함으로써 목재자원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바이오메스 에너지 대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림**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박태현 (041) 850~4051

지도와 나침반이면 어디든 OK!

26일 청태산자연휴양림 산림청장배 오리엔티어링대회 개최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국민 누구나 숲을 누리고 즐기는 산림휴양문화의 활성화와 건전한 산악레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강원도 횡성군 소재 청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제6회 산림청장배 오리엔티어링대회를 개최한다.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이란 지도와 나침반만을 사용하여 지도 위에 표시된 지점들을 통과해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겨루는 경기로 지형 탐지 능력을 기르고, 심신을 연마할 수 있는 산악레포츠이다. 산림청장배 오리엔티어링대회는 건전한 산악레포츠 활동의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산림이용문화를 확산하고,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청태산 자연휴양림내에 마련된 코스에서 펼쳐지며, 초·중·고·대학부, 가족팀 등 22개 부문에 약 450여명이 참여하여 기량을 겨루게 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산림청 휴양등산과 김현수과장은 “단풍이 붉게 물든 아름다운 숲속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반복되는 일상과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가을 숲을 만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

산림청 휴양등산과 김봉수 (042) 481~4107



건조한 가을, 예년보다 3배 이상 산불 증가

산림청, 27일「전국 산불관계관 회의」통해 산불 총력대응체계 구축

올 가을 들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이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10월까지 2개월여에 걸쳐 전국적으로 3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예년보다 가을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하영제)에 따르면 지난 9월~10월 사이 전국적으로 37건의 산불이 발생, 예년 평균 10건에 비해 3배 이상 산불발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가을 들어 강우 일수는 예년의 55%(11일), 강우량은 예년의 36%(96mm) 수준에 그치고 평균 기온은 1.5℃나 증가(19.3℃)하는 등 극심한 가을 가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7일 전국 시·도 산불관계관 및 지방 산림청장 등이 참석하는「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열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시달하고, 지역별 산불예방·진화대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독려했다.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 : 10. 27(월), 14:00 ~ /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대회의실

이밖에도 산림청은 전국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등 2만8천여 명의 산불감시 인력을 조기에 배치하여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산불발생지에 대해서는 경찰, 자율방범대, 해병 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길목 지키기, 출입차량 단속 등을 통해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방화성 산불에도 대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오는 11월14일 지방자치단체와 군, 경찰, 소방·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전국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 지상 및 공중 진화 공조체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기상상황에 따른 산불위험 예보제 및 산불확산 예측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산불위험 수위에 따라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불

진화 헬기, 무인감시카메라, 원거리 산불진화기 등 산불예방·감시 장비의 운영체계를 효율화하여 유사시 초동진화 능력을 강화해 산불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하영제 산림청장은 “올 가을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그 어느 해 보다도 산불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등산이나 입산시 인화 물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겠으며, 국민 모두가 산불감시자가 되어 소중한 우리의 산림자원과 재산을 지켜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부했다. **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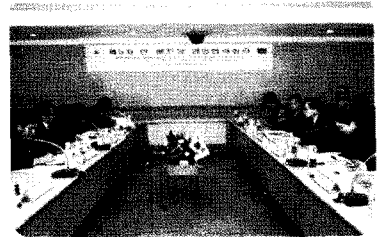
산림청 산불방지과 강성철 사무관 (042) 481~4251

산림청, 베트남 산림투자 및 CDM 협력 강화하기로...

산림청, 28일 대전청사에서 한·베트남 임업협력회의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있는 「제5차 한·베트남 임업협력회의」에서 『산림투자 및 탄소흡수 CDM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A/R CDM 사업을 위한 정보제공과 기후 변화협약에 대비한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에 양국이 적극 공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영균 산림청 산림자원국장과 뉴엔녹빈(Nguyen Ngoc Binh)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임업국장이 수석대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산림투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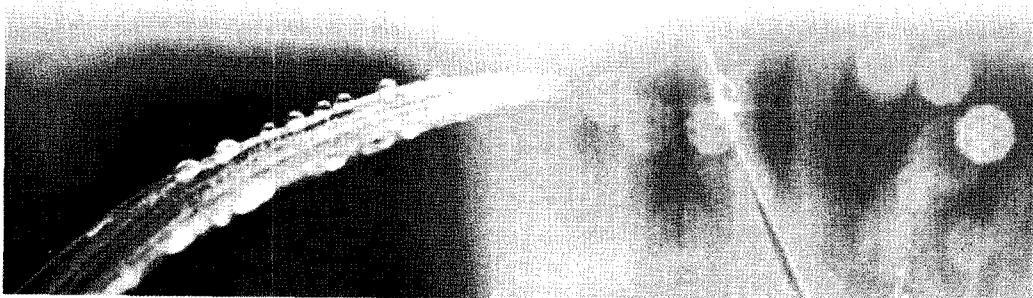
산림투자 및 탄소흡수CDM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아세안 환경협력사업단(AKECU)이 주관하는 제3기 한·아세안 환경협력사업(2008~2011)을 추진하기 위해 베트남 산림과학연구소(Forest Science Institute of Vietnam)와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를 통해 베트남은 한국의 선진 산림기술 전수를 통해 베트남의 훼손된 산림복원을 위한 연구능력의 향상과 정보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산림과학연구소와의 협력활동에는 국가산림활동의 분석 및 평가, 타이빈주 쉐인투이 국립공원 내 망그로브숲 경제적 가치 분석, 한국대학에서의 산림분야 석사과정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의 많은 기업이 산업조림뿐 아니라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과의 이번 합의를 통해 이 분야에서의 투자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베트남에는 한화자원(주), 태림환경(주) 등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하여 해외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 정치적 안정성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적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약 800ha의 조림지를 확보하고 있는 등 조림투자 적지로 꼽히는 나라중 하나다. **산림**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과 입하수 사무관 (042) 481~4081



산림청, '백두대간 대청소 나섰다'

민간단체 등과 가을철 "백두대간 사랑운동"펼쳐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가을 단풍기간 동안 6개 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걸쳐있는 백두대간 전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기관, 백두대간보호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대청소, 생태계 보호캠페인 등 가을철 "백두대간 사랑운동"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1개월 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산림청은 백두대간진흥회와 공동 주관으로 10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일원에서 동부지방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진흥회, 한국등산지원센터, 백두대간보존회,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 녹색연합 등 8개 단체,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두대간 사랑운동" 행사를 실시하였다.

하영제 산림청장은 최근 백두대간 종주 붐으로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오물과 쓰레기 투기로 인한 경관훼손과 오염이 야기되고,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산나물, 산약초, 야생동식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포획하여 자연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행정기관 주도로 이러한 불법적 훼손행위를 계도·단속하고 오염된 자연을 효율적으로 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이번 행사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지역주민, 환경단체, 관계기관 등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백두대간 사랑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에게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자연사랑과 국토사랑의 건전한 국민의식을 함양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청은 민간단체 주도의 백두대간 network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백두대간 지킴이가 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山林**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황의식 서기관 (042) 481~4219

광릉숲에서 만나는 우리의 전통목 가구 전시회

‘가구’란 집안 살림살이에 쓰이는 기구·집물 또는 목물을 주로 해서 만든 세간의 책장·탁자·찬장 등을 일컫는다. 옷의 수납과 음식·곡물의 저장과 운반, 휴식에 이르기 까지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귀중한 생활용품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목가구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이 많아 나무의 종류가 다양하고 무늬가 아름다운 나무를 구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가장 잘 표현된 한국미술품으로는 백자, 분청사기, 목공예품을 꼽을 수 있다. 완벽함보다는 성근맛이 있고 장식적인 면 보다는 순수함이, 그리고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맛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목가구는 자연재료로 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자연미를 느끼게 하면서도 개성이 강하며 건강한 조형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목가구는 한국의 자연환경과 사회적 규범 그리고 생활양식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나무결을 그대로 살려 문양으로 사용하였고, 구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장식도 배제하였다. 또한 각 부재를 연결함에 있어서도 못을 사용하지 않고 짜 맞추는 결구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광릉숲에서 만나는 우리의 전통 가구”라는 주제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조교(조화신)이 전수받은 전통 작업방식으로서 기둥과 쇠목, 동자 등의 부재들로 인해 구성되는 면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오랜 손놀림에 농익은 아름다운 면 분할과 비례감은 시간의 경계를 넘어 현대적 이기까지 하다. 이와 같이 우리 목가구는 안락함과 실용성을 뛰어넘어 미적인 요소까지 겸비한 최고의 생활예술품 중 하나이다. 또한 자연과의 교감으로 파생되는 작품예술의 이해증진과 광릉숲 보존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전시작품으로는 삼층장, 머릿장, 찬탁 등 20종 27점이다. 전시는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국립수목원에 입장한 관람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산림**

전시교육과 황근연 (031) 540~1042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부산시민 서울시민의 2.8배 넓어

생활권 도시림이란 도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별도의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고,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도시림을 말한다. 도시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07년 현재 전국 1인당 생활권 도시림면적은 7㎡ 정도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9㎡/1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도시림 통계는 2005년에 이은 두 번째로서 각 시·도별 도시림 전반에 관한 수치와 2년 동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전국 1인당 생활권 도시림면적은 '07년 7㎡로 '05년 6.59㎡보다 약 6%의 증가세를 보인다.

이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전국 특별/광역시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부산(11.60㎡), 광주(6.89㎡), 대전(6.30㎡)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천(3.27㎡), 서울(4.13㎡)이 가장 낮았다. 또한 2년간의 증감에 있어 부산(4.52㎡), 광주(2.7㎡), 대전(1.24㎡)은 증가를 보였으나 울산(-2.58㎡), 서울(-0.97㎡), 대구(-0.93㎡), 인천(-0.35㎡)은 감소세를 보인다. 9개 도별(제주특별자치도 포함)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제주(20.15㎡), 경남(15.11㎡), 전북(13.6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부분의 지역은 전국평균인 7㎡를 초과한다. 경기(4.84㎡)의 경우 가장 작은 면적으로 나타남. 8개 도가 2년간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기도(-1.49㎡)는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창원(15.36㎡), 포항(9.72㎡), 수원(9.6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남(4.21㎡), 부천(2.54㎡), 안양(1.51㎡) 순으로 가장 낮음. 기타 도시는 전국평균인 7㎡를 초과한다. 인구 50만 이하 시들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과천(73.12㎡), 태백(58.13㎡), 정읍(36.67㎡) 등은 1인당 생활권 도시림면적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경기 광주(0.46㎡), 포천(0.49㎡), 양주(1.12㎡) 등은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띠고 있다.

전국 80개 군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편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산청(101.87㎡), 진도(74.69㎡), 의성(56.03㎡) 등이 가장 높은 반면, 옥천(0.57㎡), 철원(1.17㎡), 강진(1.30㎡) 등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산림**

산림청 도시경관과 김영혁 사무관 (042) 481~4108